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표지 탐색하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기]

1) 책 앞표지에 그려진 4컷의 그림은 각각 어떤 모습인가요?

⇒

2) 책 앞표지에 그려진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겉모습)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3) 책 앞표지에 그려진 등장인물들의 모습으로 보아,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나요?

⇒

###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기]

4) 이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이 작품은 ( )에서 생긴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과 ( )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하지만, 그 같은 내막을 알 길 없던 그 때의 나는, 그저 아버지의 그런 돌변이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 나는 내가 싸우는 데 필요한 방책을 듣기는커녕, 그 싸움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불의의 존재 자체마저 헛갈리게 되어 버린 셈이었다.

· 담임 선생님의 그 눈먼 신임이 그를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 위에 군림하게 했다.

· 그렇지만 묵시적 강요라는 개념을 몰랐던 나는 그것을 아무런 흠 없는 증여로만 알아 왔는데, 그 날은 그나마 최소한의 그런 형식도 무시될 것 같았다.

(나) 어른들 식으로 표현한다면, 한쪽은 너무 민주의 뜻에 충실해 갈팡질팡하는 다수와 함께 우왕좌왕했고, 또 한쪽은 석대식의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해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내막 : \_\_\_\_\_ · 방책 : \_\_\_\_\_ · 불의 : \_\_\_\_\_ · 군림 : \_\_\_\_\_ · 묵시적 : \_\_\_\_\_

- ① 방법과 궤를 아울러 이르는 말.
- ②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 ③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속 내용.
- ④ 어떤 분야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남을 압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또는 그런 것.

2)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 한자 성어를 (나)에서 찾아 쓰세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종잡지 못하는 모양.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 때, 분명히 석대에게 라이터를 빼앗겨 놓고도, 담임 선생님이 문자 빌려 주었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던 병조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르고, 모처럼 석대를 마음놓고 고발할 기회를 주었던건만, 오히려 나 자신의 자질구레한 잘못들만 가득 적혀 있던 시험지들이 섬뜩하게 눈앞에 되살아났다.

(나) 그 뒤 한동안 우리 반을 혼란스럽게 만든 선거 만능 풍조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반장 선거의 개표가 거의 끝나 갈 무렵이었다. 추천제도 없이 바로 하게 된 선거라 반 아이 절반쯤의 이름이 흑판 위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세게 교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1) (가)의 밑줄 친 관용적 표현이 지닌 뜻을 쓰고, 그 표현의 뜻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하나 지어 보세요.

⇒ 뜻 :

문장 짓기 :

2) (나)의 밑줄 친 속담이 지닌 뜻을 써 보세요.

⇒

3) (나)의 밑줄 친 부분처럼 속담을 사용해서 글을 쓸 때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써 보세요.

⇒ ①

②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독해력\_‘나’(병태)의 전학

다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자유당 정권이 그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해 3월 중순, 나는 자랑스레 다니던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를 떠나 시골의 한 작은 읍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공무원인 아버지가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자 우리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된 까닭이었는데, 그 때 나는 열두 살로 이제 막 5학년이 된 참이었다.

(나) “새로 전학 온 한병태다. 앞으로 잘 지내도록.” / 담임 선생님은 그 한 마디로 소개를 끝낸 뒤, 나를 뒤쪽 빈 자리에 앉게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갔다. 새로 전학 온 아이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자랑 섞인 소개를 늘어놓던 서울 선생님들의 자상함이 떠오르자, 나는 야속한 느낌이 들었다.

(다) “너는 저기 앉도록 해. 저기가 네 자리야.” / 그 갑작스런 지시에 나는 약간 정신이 들었다. / “선생님이 저기 앉으라고 하셨는데…….” / 문득 되살아나는 서울에서의 기억으로 그렇게 대꾸했지만, 얼마 전의 투지는 되살아나지 않았다. 엄석대는 내 말은 못 들은 척 넘어갔다.

“어이, 김영수, 여기 이 한병태와 자리 바꿔.” / 석대가 그 자리에 앉았던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 아이는 두말하지 않고 책가방을 챙겼다. 그 아이의 철저한 복종이 다시 묘한 힘으로 나를 몰아, 잠시 머뭇거린 것으로 저항을 마치고 나도 자리를 옮겼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 ① ‘나’(병태)의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나’는 전학을 가게 된다.
- ② ‘나’(병태)는 전학 온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 ③ 공무원인 ‘나’(병태)의 아버지는 현재 있던 자리에서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 ④ ‘나’(병태)는 서울의 명문 초등 학교를 다녔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⑤ ‘나’(병태)는 시골 읍내 학교의 반장인 ‘석대’의 말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있다.

2) (다)에서 ‘영수’가 두말하지 않고 ‘병태’와 자리를 바꾼 이유를 쓰세요.

<조건> (다)에서 ‘석대’에 대한 ‘영수’의 태도가 드러난 단어를 포함하여 쓸 것.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사고력\_전학 온 학교의 새로운 환경과 질서

다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른들 식으로 표현한다면,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는 확신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응은 그 때의 내게는 아직 무리였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마흔이 다 된 지금도 그런 일에는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나) “우선 이걸 보라.”/ 내가 쭈뼛거리며 교무실로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은 먼저 그 무기명 고발장 뭉치부터 내게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 하나씩 들춰 보았다. 담임 선생님의 거둬진 당부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백지였는데, 놀라운 것은 무언가가 쓰인 그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었다.

㉠정확히, 서른두 장 중에 열다섯 장이 나의 이런저런 잘못을 들추고 있었다.

1) ‘나’(병태)는 전학 온 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병태)가 왜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가)에서 찾아 그 이유를 쓰세요.

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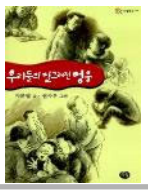
⇒

2) 이 책에서 말하는 이(서술자)는 현재 어른이고, 과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단서가 드러난 부분을 (가)에서 찾아 쓰세요.

⇒

3) 담임 선생님이 받은 무기명 고발장 중 일부인 ㉠을 보고 ‘나’(병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써 보세요.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독해/사고\_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대한 ‘나’의 대처

다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하기야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의 질서에 온전히 길들여지고 그의 왕국에 비판없이 안주하게 되었을 때, ㉠그가 베푼 은총의 대가로 내가 지불해야 했던 게 한 가지 더 있기는 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그림 솜씨였다. 나는 미술 실기 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이 한 장을 그리는 동안 두 장을 그려야 했다. 그림 솜씨가 시원찮은 석대를 위해서였는데, 그 바람에 ‘우리들의 솜씨’란에는 종종 내 그림 두 장이 석대의 이름과 내 이름을 달고 나란히 붙어 있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석대가 원해서 그랬는지, 내가 자청해서 그랬는지조차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강요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짐작으로는 그의 왕국에 안주한 한 신하로서의 도리를 한 것에 가까웠던 것 같다.

(나) 그 때에는 이미 두 달 가까이나 맛들인 굴종의 단 열매나 영악스런 계산도 나를 말렸다. 사실, 석대의 질서 아래 있다고 해서 내게 불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말했듯, 나의 끈질기고 오랜 저항은 오히려 훈장이 되어 내게 여러 가지 특전으로 되돌아온 까닭이었다.

1) 밑줄 친 ㉠이 가리키는 바를 (가)에서 찾아 쓰세요.

⇒

2) ㉡의 상황으로 보아, ‘나’(병태)는 ‘석대’가 이루어 놓은 새로운 질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는지 쓰세요.

⇒

3) ‘석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나’(병태)는 고민 끝에 (나)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이 ‘나’(병태)의 처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해 보세요.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독해/사고\_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대한 ‘선생님’의 대처

다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껏 선생님이 알아 낸 것은, 석대와 저 아이들이 시험지를 바꾸어 공정한 채점을 방해한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 반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지난날부터 정리해야 한다. 내 짐작으로는 그 밖에도 석대가 한 나쁜 짓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 1번부터 차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석대의 잘못이나 석대에게 당한 괴로운 일들을 있는 대로 모두 얘기해 주기 바란다.”

(나) “자,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엄석대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다른 그 어떤 반보다 훌륭한 반을 만들어 보라. 너희들은 이미 회의 진행 방법도 배웠고, 의사를 결정짓는 과정과 투표에 대해서도 알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그냥 곁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겠다.”

(다) 모두 흑판 위에서 붙어 가는 정자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놀라 돌아보니, 엄석대가 그 문을 나가다 말고 우리를 무섭게 흘겨보며 소리쳤다.

㉠“잘 해 봐, 이 새끼들아!” / 그리고 짹짹 복도로 뛰어 달아나는 것이었다.

1) 윗글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닌 인물은 누구인지 쓰세요.

- ‘엄석대’ 체제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함.
- 학급 내의 민주적인 환경과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게 함.



2) 반장을 다시 뽑는 과정에서 칠판에 반 아이 절반쯤의 이름이 적히게 된 상황을 본 ‘석대’가 ㉠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석대’의 마음은 어땠는지 짐작하여 써 보세요.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사고력\_‘나’가 어른이 되어 바라본 현실

다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처음에 일류 학교 출신답게 대기업에 들어갔던 나는 2년 만에 모래 위에 세운 궁궐같은 것만 느껴지는 그 곳을 떠나 고급 세일즈맨으로 재출발했다. ㉠근무하기도 자유롭지도 않고, 경영이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성장 과정조차 정의롭지 못한 집단 속에서 젊음과 재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 군인이 된 줄 알았던 동창은 난데없이 중앙 부처의 관찮은 자리에 올라 있었으며, 재수마저 실패해 이름뿐인 대학에 들어갔던 녀석은 어물쩍 미국 박사가 되어 제법 교수티를 냈다. / ㉡나는 급했다. 그 때, 이미 내 관심은 그런 성공의 온당치 못한 과정이나 그걸 가능하게 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 쪽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 나도 어서 그들의 풍성한 식탁 모퉁이에 끼여들고 싶었다.

(다)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려?” / 보다 못한 다른 형사가 그렇게 쏘아붙이며 한 손을 빼 남자의 입가를 쳤다. 그 충격에 선글라스가 벗겨져 날아갔다. 그러자 비로소 드러난 그 남자의 얼굴, 아! 그것은 놀랍게도 엄석대였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건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우뚝한 콧날, 역세 보이는 턱, 그리고 번쩍이는 눈길..... / 나는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두 눈을 질끈 감았다.

1) 사회에 대해 ㉠과 같이 생각했던 ‘나’(병태)가 가난을 겪고 ㉡처럼 생각이 바뀝니다. ㉢에 담긴 ‘나’(병태)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세요.

⇒

2) ‘나’(병태)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엄석대’는 틀림없이 다시 반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병태)가 (다)에서 다시 ‘엄석대’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짐작하여 서술해 보세요.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사고력\_권력에 대한 인물의 관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나온 인물들의 다음 말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5학년 담임 선생님 : 설령 네가 옳더라도..... 나는 반 아이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석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네가 반드시 그러리라 믿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그 지지란 것이 실상은 석대의 위협이나 속임수에 넘어 간 거짓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쨌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석대의 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
- 6학년 담임 선생님 :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것도 한 학급의 우등생인 녀석들이.....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맞은 것과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1) 위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 및 성향을 파악해 써 보세요.

5학년 담임 선생님	
6학년 담임 선생님	

2) ‘6학년 담임 선생님’의 관점에서 ‘5학년 담임 선생님’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할 때, 어떤 점을 비판할 수 있는지 서술해 보세요.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림 | 이문열 글 / 권사우 그림



##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1) 시험을 보는 아이, 가방을 싸려는 친구를 쳐다보는 아이, 혼자 고민에 빠진 아이, 친구 들끼리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2) (예시답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가방의 모습이나 입는 옷의 스타일이 다르다. 3) (예시답안) 교복이나 책가방 등 등장인물들의 차림으로 보아 1960년대 또는 1970년대일 것이다. 4) 초등학교 교실, 개인, 집단
2쪽	1) 내막 : ③, 방책 : ①, 불의 : ②, 군림 : ④, 목시적 : ⑤ 2) 우왕좌왕 ('갈팡질팡'은 비슷한 뜻이지만 한자 성어는 아닙니다.)
3쪽	1) 뜻 :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 문장 짓기 : 네가 도자기를 깨뜨린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도 끝까지 시치미를 뚝 거냐? 2)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르는 말. 3) ① 짧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②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듣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
4쪽	1) ⑤ 2) '영수'는 '석대'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5쪽	1) '나'(병태)가 전학 온 반에는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2) 솔직히 털어놓으면, 마흔이 다 된 지금도 그런 일에는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3) (예시답안) '석대'의 만행을 담임 선생님이 아셨으면 해서 '나'(병태)가 담임 선생님께 무기명 고발장을 제안한 것인데 오히려 자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종이를 보고 많이 당황해 하고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 속상했을 것 같다.
6쪽	1) 나의 그림 솜씨 2) '나'(병태)는 '석대'가 이루어 놓은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고 결국 '석대'에 복종하게 되었다. 3) (예시답안) 내가 '병태'라면 나는 '석대'의 부정 행위를 담임 선생님께 고발하지 못했을 것 같다. 어차피 고발한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선생님이 믿어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또 '석대'의 지배 하에 산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그리 손해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내가 '병태'라면 나는 '석대'의 부정 행위를 담임 선생님께 고발했을 것 같다. 이번에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께 말씀드려 잘못된 '석대'의 행동을 바로 잡았을 것 같다. 등
7쪽	1)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 2) (예시답안) '석대'는 그동안 반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는데 선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굴욕적이었을 것이다.
8쪽	1) (예시답안) 나는 제도적인 사회 틀에서 벗어나 합리와 자유를 찾기로 한 '병태'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데, 결국 '병태'도 부조리한 사회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려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실망했다. 나는 부조리한 사회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합리와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예시답안) '나'(병태)는 '엄석대'가 과거 학급에서 권력자 노릇을 하며 학급을 부조리하게 만든 것처럼 부조리한 사회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
9쪽	1) • 5학년 담임 선생님 : 방관자적이고 무사안일한 사고를 지님. • 6학년 담임 선생님 : 개혁적이고 개혁적 의지를 실천함. 2) (예시답안) '6학년 담임 선생님'은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고 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을 지녔다. 이 관점에서 부조리한 현실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5학년 담임 선생님'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